

# 사유 등 9개 테마로 속살 탐사한 한국불교



**테마 한국불교**  
동국대 불교문화원  
HK연구단 역음  
동국대 출판부 펴냄  
2만원

이 책은 아홉 개 테마로 한국불교를 써 내려간다. 1700년 장대한 한국불교를 몇 개 테마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맹랑한 것인 줄 알지만 적절한 절단면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속내를 탐사하는 것도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 탐사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 연구단이 '글로벌리더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담론'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간 진행할 것이다. 이 기획으로 한국불교가 가진 지역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룩한 세계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로서 한국불교의 고유성과 그것의 보편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현재의 의미로 확산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조망 아래 이루어진 첫 연구 성과로서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됐다.

첫째 '사유와 가치'에서는 유식, 총의, 하늘, 둘째 '종교와 국가'에서는 제정일치, 원력, 사전(寺田), 그리고 셋째 '문화와 교류'에서는 자장, 변체한문, 연등회·팔관회를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이 1차 성과는 한국불교의 고유성 탐색에

좀더 무게를 두고 진행된 연구결과이다. 그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행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고, 그 결과 새로운 지대에서 한국불교의 고유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홉 개 테마가 집중하는 시기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이지만 개별 테마는 한국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기술됐다. 그래서 단순한 논문 모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한국 불교의 안쪽 면을 보다 손쉽게 더듬을 수 있도록 개성서의 성격에 띠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의 주제에 대한 논리정연한 설명들은 이해하기 쉽게 강의식으로 펼쳐져 있다.

중국불교를 전공한 박인석 교수는 유식에 대해 말한다. "동아시아 유식학은 8세기를 전후해 당과 신라의 유식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꽃피었다. 이들 가운데는 원측과 같이 중국 범상종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를 형성한 인물도 있고, 의적과 같이 규기의 견해를 적극 비판하면서 보다 융합적이고 일상적인 견해를 표방한 인물도 있다. 경흥과 같이 중국 범상종의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도 있다. 나아가 순경·원효 등이 제기한 현장의 유식 비판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인 사유 법칙을 추구한 유식학의 학문적 태도가 당시 신라에 매우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역시 중국불교를 전공한 김영진 교수도 "고대 한국에 불교가 전래됐을 때, 불

교는 업설이라는 새로운 운명관을 제시했다. 그것은 천신의 운명 지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론적인 운명론을 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 내부에 존속한 하늘 관념과 고대 한국에 재래한 하늘 관념은 당시 불교도의 사유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늘 편에서 설명한다.

초기불교교단사와 계율을 전공한 이자랑 교수는 "실제로 불교 수용 이후 삼국의 왕들은 전륜성왕의 이념을 빌려 왕권을 강화했다.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호태성왕'이라 불렀고, 백제의 성왕은 생전에도 성왕으로 불렸는

## 삼국~통일신라 시대 집중 연구

### 총 90개 테마로 10년간 프로젝트 진행

### 동국대 HK연구단 매년 간행 예정

데, 이는 성왕 스스로 전륜성왕을 자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국 가운데 특히 전륜성왕 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왕권강화책을 강구한 나라는 신라였다. 신라에는 전륜성왕 이념이 진흥왕 시대에 도입되어 정복군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진흥왕은 아들들의 이름을 전륜성왕을 나타내는 동륜과 사륜 등으로 짓고, 황룡사 장유존상을 조성하며, 순수비를 건립하였는데, 이는 그가 전륜성왕설을 알고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된다."고

제정일치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사를 전공한 박광연 교수도 사찰의 토지에 대한 연구를 이 책에 적어 놓았다. 박 교수는 "전장(田莊)이란 대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원이 소유한 대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에선 장원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특별히 사령장원(寺領莊園)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반면 한국은 장원이라는 용어가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준하는 말로 전장, 장전, 전원, 농장, 별서 등이 나오고, 이를 대표하는 용어로 일찍부터 전장을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고전시가 전문가인 김기중 교수는 불교의 전래와 삼국시대 사용하던 변체한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한자·한문이 수용·확산되는 한편으로, 삼국시대의 몇몇 금석문에는 비한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곧 변체한문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체한문은 한문의 미숙한 구사라도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대적인 중국어와 교차어인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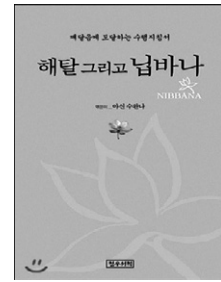
한편 동국대 HK연구단은 '인문학총서' 시리즈로 매년 '테마 한국불교'를 간행할 예정이다. 연구단이 10년간 기획한 전체 90개 테마는 각각의 절단면으로 한국불교의 세 시대를 확인하고 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부처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 문사수로 체계적 정리

## 해탈 그리고 님바나

역은 아신 수완나 | 정우서적 펴냄 | 8천원



이 책은 답답히 수행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수행법을 발견하게 된 동기부터 부처님의 수행과 지혜의 완성, 가르침의 핵심을 문사수(聞思修)로 정리한다.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리아랫자 수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리아랫자 수행의 준비 단계: 수행자의 기본 자세와 번뇌의 근원을 밝혀 제시한다.

△아리아랫자 수행 1단계: 믿음의 힘 기르기, 자신을 앞에 도전하기, 자애 갖추기

△아리아랫자 수행 2단계: 멍춤 들어가기, 올바른 불경험하기, 몸 느낌 마음에 대한 관찰

△아리아랫자 수행 3단계: 괴로움 앎, 일어남, 소멸, 이르는 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지혜

△아리아랫자 실천단계: 언제나 깨어 있음의 실천, 편견 없음의 실천, 자비 베품의 실천

前 해인사 주지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도성 영공 스님은 "아신 수완나 사야도의 집필은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 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이다"고 평했다. 이어 전재성 박사도 "선불교 전통에서, 참선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라고 추천사를 통해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징은 예기(修)로 정리한다.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리아랫자 수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리아랫자 수행의 준비 단계: 수행자의 기본 자세와 번뇌의 근원을 밝혀 제시한다.

△아리아랫자 수행 1단계: 믿음의 힘 기르기, 자신을 앞에 도전하기, 자애 갖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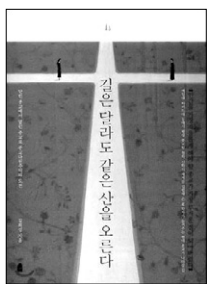
△아리아랫자 수행 2단계: 멍춤 들어가기, 올바른 불경험하기, 몸 느낌 마음에 대한 관찰

△아리아랫자 수행 3단계: 괴로움 앎, 일어남, 소멸, 이르는 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지혜

# 老 종교학자가 본 종교의 본질적 역할

##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길희성 지음 | 휴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동서양 종교와 철학, 신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야와 깊은 연구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이자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겨레신문> 웹진 '휴심정'에 기고했던 글들을 조금씩 다듬고 보완해서 펴낸 것이다. 저자는 종교다원주의자 입장에서 종교의 본질적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적·도그마적 종교 이후 세상을 이끌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 본연의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고 심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종교의 유무를 떠나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전 세계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 전반에서 노(老) 종교비교학자가 학문적 탐구의 삶에서 걸어 올린 깊은 사유와 빛나는 혜안으로 얻은 종교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종교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조언이 인상적이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종교도 인간의 고민과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고뇌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행복의 길. 깊은 영성 속에서 평생을 종교비교학자의 삶을 살았던 노(老)학자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저자의 글은 종교 모두를 부정하는 세속주의나 한 종교의 언어를 절대화하는 근본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을 걸으면서 종교 간의 벽을 넘고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종교적 영성을 추하는 데 목적이 있어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많은 종교 중 이 책은 특히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서양 영성의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명상으로 내면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자석의 자기장 활용한 명상법 소개

## 자기명상

이승헌 지음 | 한문화멀티미디어 펴냄 | 9500원



일지 이승헌 총장은 현대대학, 뇌호흡, 장생보법, 뇌파진동, 생명전자 수련 등 지난 30년간 다양한 심신수련법과 명상법을 개발해 세계적인 멘탈헬스 권위자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멘탈헬스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가 이번에는 자석을 이용한 쉽고, 빠르고, 강력한 명상법을 담은 책 <자기명상>을 출간했다.

자기명상이란, 자석의 자기장을 활용해 에너지를 느끼고, 그 느낌을 증폭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로 소통하면서 명상의 효과를 깊고 넓게 체험하는 획기적인 명상법이다.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수련을 지도해오면서 기(氣)를 느끼는 감각이 약해서 그 세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수

련자들을 보며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느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확인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강력하고도 섬세한 에너지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체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안한 것이 바로 자기명상법이다.

자석을 손으로 잡고 몸 가까이 대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면, 몸에서 찢어질듯한 자력감이나 전류감이 느껴진다. 우리 몸속의 생체자기가 자석의 자기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느낌은 기수련을 할 때 느끼는 에너지의 감각과 매우 비슷해서 자석을 이용하면 아무리 집중을 못 하는 사람도 빠르고 쉽고 강력하게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자기명상법에서 자석은 에너지의 세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자기명상을 하면 몸의 감각을 깨워 기 에너지의 느낌을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잠념을 떨치기 쉬워 빠르게 의식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잠깐만 집중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이 책에서 주장하는 아리아랫자 실천 수행법**

1. 4주를 한 주기로 매일 수행시간은 자율로 수행합니다.
2. 첫째 주 7일 동안=가르침의 핵심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수행자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건지 번뇌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고찰합니다.
3. 둘째 주 7일 동안=아리아랫자 수행 1단계의 과정 즉 믿음의 힘을 기르는 수행으로 신심을 키우고, 자신의 앞에 대한 수행으로 불건전한 습관들을 낱날이 숙고해 건전한 습관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또한 자애를 갖추는 수행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멈추는 등, 단계적으로 수행을 실천합니다.
4. 셋째 주 7일 동안=아리아랫자 수행 2단계의 과정 즉 멍춤에 들어가 기 수행으로 번뇌명상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올바른 몸의 수행으로 사념처에 대해 낱날이 불을 이루어 관찰의 힘을 키우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5. 넷째 주 7일 동안=아리아랫자 수행 3단계의 과정 즉 괴로움을 분명히 아는 수행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통찰하는 수행과, 괴로움 소멸에 대한 통찰 수행과,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통찰하는 수행과, 무상 고 무아를 남김없이 통찰하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수행과위가 체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6. 완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할에서 끝냄에 이르기까지 가거나 멈추거나 안거나 서거나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 성숙된 수행자라면, 위의 과정을 1일 주기로 정진하기를 권장합니다.

turn'em on

## What is Buddha Cookie!!

#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흥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세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